

2017 하반기 지방직 9급 해설(C책형)

01.

정답 ④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

① 괴념 → 괘념(掛念):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② 발체 → 발취(拔萃): 책, 글 따위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냄. 또는 그런 내용.

③ 와해 → 와해(瓦解):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을 이르는 말.

02.

정답 ③

③ 형님: 손위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아내의 오빠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손위 동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나이가 든 친한 여자들 사이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시누이: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동서: 시아주버니의 아내를 이르는 말. / 시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이르는 말.

① 큰아빠: 어린아이의 말로 '큰아버지(아버지의 형)'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② 오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손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남남끼리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④ 부인: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03.

정답 ①

① 세 번째 문단에서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독립에의 공포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③ 네 번째 문단에서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일컫는다고 했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04.

정답 ②

4연, 6연, 7연에서 낙화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듯 인간도 헤어짐을 통해 성숙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이별의 아픔 속에 성장하는 인간 내면의 깨달음을 심미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결별의 슬픔을 자신의 영혼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말은 정답이다.

① 이 작품은 '개화-낙화-결실'이라는 계절의 순환현상을 통해서 '만남-헤어짐-성숙'이라는 인생의 한 단면을 유추하여 통찰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위대함을 자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시적 화자는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을 통해 아름다운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적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④ 흩어져 떨어지는 꽃잎들을 통해 낙화와 이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인생의 무상함과 거리가 멀다.

05.

정답 ③

그는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정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로, '정처없다'라는 동사는 없으므로 '정처 없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한편 '떠돌아다니다'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떠돌아다니다'가 한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① 일이 얽히고설키어서 풀기가 어렵다.: '얽히고설키다'는 '일, 감정 따위가 이리 저리 복잡하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②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알아주다'는 '남의 사정을 이해하다.'라는 뜻의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또한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없는 짓이었다.: '속절없다'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6.

정답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예: 방약무인한 행동, 방약무인하게 굴다)

07.

정답 ③

㉠ yellow: 옐로

㉡ cardigan: 카디건

㉢ vision: 비전

㉣ lobster: 로브스터/랍스터

㉤ container: 컨테이너

08.

정답 ③

㉠ 태도(態度 모습 태, 법 도):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 道(길 도).

㉡ 열악(劣惡 못할 열, 악할 악): '열악하다(품질이나 능력, 시설 따위가 매우 떨어지고 나쁜

다)'의 어근.

㉠ 경의(敬意 공경 경, 뜻 의): 존경하는 뜻.

㉡ 귀감(龜鑑 거북 귀, 거울 감):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09.

정답 ④

④ 게재(揭載 높이 들 게, 실을 재): 신문 따위에 글이나 그림을 실음.

게양(揭揚 높이 들 게, 날릴 양): 기(旗) 따위를 높이 걸.

① 대동(帶同 띠 대, 한가지 동):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느려 함께 함.

② 기록(記錄 기록할 기, 기록할 록):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③ 설치(設置 베풀 설, 둘 치): 베풀어서 둠.

10.

정답 ③

먼저 (나)와 (다)를 비교하면 (나)는 소유에서 오는 행복과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을 비교하고 있고 (다)는 행복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론으로 제시할 만한 문단은 (다)가 더 적절하다. (다)의 다음 문단으로 보기에서 제시하는 (라)와 (마)를 비교하면 (마)가 (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마) 다음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 후에 (라)는 '하지만'이라는 어구를 통해 (마)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며 '차원 높은 행복'에 관하여 언급하고, (나)에서 낮은 차원의 행복과 높은 차원의 행복을 소유에서 오는 행복과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을 통해 비교하며, (가)에서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거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문단의 순서는 '(다)-(마)-(라)-(나)-(가)'의 ③이 가장 적절하다.

11.

정답 ④

㉠: ㉠의 뒤를 보면, 앞에서 말한 타이타닉 호 속 일상사의 예가 나왔으므로 ㉠에는 '예를 들면'이 적절하다.

㉡: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면 합리적인 논리지만, 세계 경제 바깥에는 재난이 있다고 했으므로 ㉡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는 '그렇지만'이 적절하다.

㉢: ㉢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말하자면'이 적절하다.

12.

정답 ②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로, 앞과 뒤의 내용이 인과 관계가 형성될 때 사용한다.

① ㉠의 앞 문장 및 뒤 문장은 황사의 좋은 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은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 '덕분'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 명사로, 인간의 환경 파괴가 독성 황사를 일으켰다는 문맥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는 '때문'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에서 목적어를 설정할 수 있는 서술어는 타동사 혹은 '-게 하다'와 같은 형식의 서술어인데, '발생하다'는 자동사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주격조사 '가'를 설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3.

정답 ①

위 지문은 유럽에서 18~19세기에는 혁신적 지성이 강조된 반면 20세기에는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한 것을 서술하며 그 변천 양상을 살피고,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의 지성의 임무는 전문 지식의 제공에 그치지 말고 현실을 비판하며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혁신적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천 양상을 살피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② 혁신적 지성에서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를 비교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다.

③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할 뿐 상호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현대 지성의 임무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상반된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14.

정답 ①

화자는 '미타찰'에서 누이와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객관적으로 자연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15.

정답 ②

반영하기는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 이입을 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모레가 시험인데'를 듣고 시험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이해한 ②가 가장 적절하다.

16.

정답 ②

②의 '높음'은 '태산이'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서술성이 있으므로 '높음'은 형용사의 활용형이다. '젊음, 죽음, 수줍음'은 서술성이 없으므로 파생 명사이다.

17.

정답 ②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고,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① ‘자기’와 ‘당신’은 모두 앞에서 말한 ‘형님’을 가리킨다.

③ ‘당신’은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④ ‘그’는 제3자를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일 수도 있고, ‘형님’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일 수도 있다.

18.

정답 ①

㉠은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지만, ㉡과 ㉢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② ㉡은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결합하여 정물에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③ ㉢은 사물의 형태를 파편화할 때까지 왜곡했다.

④ ㉡과 ㉢은 원근법 체계를 이용하지 않았다.

19.

정답 ③

③ 두 번째 문단에서 조사는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① 네 번째 문단에서 ‘셋노랑다’와 ‘손목’은 복합어라고 하였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④ 첫 번째 문단에서 단어를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작은언니’는 한 단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20.

정답 ④

㉡ 뒤에 이어지는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를 볼 때 삶이 개선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